

인류학과 떠나는 한의학을 향한 여행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병원과 한의원을 ‘여행지’로 바라보는 책이 있다. 우리학교 한의과대학 김태우 교수가 출간한 『한의원의 인류학』이다. 이 책은 인류학적 관점을 통해 병원과 한의원을 ‘여행’한 기록을 담았다.

여행지를 감상하는 방식으로 저자는 인류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인류학은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며 의료는 인간의 여러 활동 중 하나다. 따라서 의료 역시 인류학적 이해의 대상이 된다. 저자는 의료가 의술로 ‘몸’의 병을 고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바탕인 몸에 대한 물음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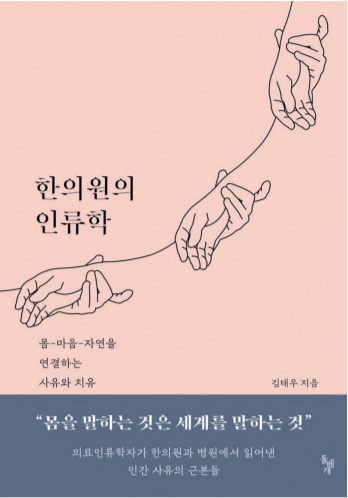
의료에 대해 탐구하며 몸을 이해하는 저자는 인류학의 주요 연구 방법인 ‘현지 조사’를 통해 직접 병원과 한의원을 오가며 체험한 것들을 책 속에 담았다. 저자는 이를 병원과 한의원으로의 ‘여행’이라 표현한다. 한의학을 중심으로 서양의학과의 병치 속에서 현지로의 여행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병원 간판 바로 옆에서 한의원 간판을 볼 수 있는 한국을 여행의 최적지로 평가한다.

저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접수대, 진료실 벽면의 포스터, 대기실의 모습 등을 여행지의 장면이라 놓고 그 속에서 인류학적 이해를 시도한다. 책 전반에 걸쳐 여행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서양의학과의 한 의학을 동등하게 놓고 비교하는 방

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한의원에서는 환자마다 약을 달리 짓는다. 하지만 이는 모두 환자를 위한 치료다. 서양의학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정확한 처방을 하며 한의학에서는 개인의 체질을 고려한 유연한 처방을 한다. 서양의학과의 한의학은 각각의 학문의 입장에서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인 김 교수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복수성을 강조했다. “생각과 세계 이해의 방식은 단수가 아닌 복수의 가능성으로 열려있고, 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 복수성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 모습을 비교하며 하나의 문제에 복수의 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류학적 이해를 보여준다. 서양의학의 특성



우리학교 한의과대학 김태우 교수가 『한의원의 인류학』을 출간했다.

상 의사는 진단 검사 결과를 띄운 모니터에 집중하지만, 한의사는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와의 대화에 집중한다. 각각의 학문에서 필요한 진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에서는 계량화된 수치를 모니터로 보여주며 진료하는 것이 환자의 신뢰를 얻기에 효과적이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몸이라는 틀

속에서 흐르는 기의 양상을 읽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화라는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실제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진료 상황을 예로 든 설명을 통해 독자는 대화에 집중하는 한의학의 진료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기의 양상을 읽어 진료하는 한의학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의학에서 생각하는 기의 개념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한다.

실제로 이 책은 한의학 자체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우면서도 서양의학과의 한의학이 기계적 이분법과 우위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다양한 사유와 활동들을 통한 이해들이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음식으로 라틴 문화 알아보기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우리학교 중남미연구소가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인문한국 플러스(HK+) 사업단·용인시 도서관 사업소와 협업해 ‘용인시민과 함께 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을 진행한다.

해당 강연은 랜선 문화 기행이라는 기획 의도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음식 문화를 주제로 역사와 문화 등을 다룬다. ‘용인시민과 함께 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기행1(라틴아메리카 문화기행1)’은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라틴아메리카 문화 전문가 정승희의 ‘라틴아메리카의 음식문화’ ▲정욱 커피 전문가의 ‘커피의 역사, 커피의 나라 코스타리카’ ▲커피 펍토리 김세훈 대표의 ‘라틴아메리카 커피 전문가(바리스타)와 함께 하는 커피 제조법 배우기’ ▲우리학교 황수현 스페인어학과 교수의 ‘달콤 쌉사름한 초콜릿’ 총 4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5일에 진행된 1회차 강



황수현 교수는 강연을 통해 멕시코에서 기원한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재배의 역사와 초콜릿 문화사를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언스플래쉬)

연 ‘라틴아메리카의 음식문화’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식문화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페인, 이슬람, 아프리카적 요소가 가미된 라틴아메리카 식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탐구할 라틴아메리카의 음식문화에 대한 큰 지도를 제시하였다. 이달 1일에 진행된 2회차 강연 ‘커피의 역사, 커피의 나라 코스타리카’에서는 커피의 기원 및 종류에서부터 커피에 얹힌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았다. 오는 8일에 진행될 3회차 강연에서는 국내로 수입된 커피 생두가 로스팅과정을 거쳐 원두로 재탄생되어 한 잔

의 커피로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중남미연구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우리학교 스페인어학과 황수현 교수는 6월 15일 4회차 강연인 ‘초콜릿의 문화사, 영화 <달콤 쌉사름한 초콜릿>과 사랑의 묘약’을 진행한다. 해당 강의는 멕시코에서 기원한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재배의 역사와 초콜릿 문화사를 주제로 이에 담긴 제국주의의 이면을 살펴본다. 또 멕시코 작가 라우라 에스키벨의 작품을 영화화한 <달콤 쌉사름한 초콜릿>을 소개하며 작품에 나타난 사랑과 음식 문화 이야기를

풀어낼 계획이다.

황 교수는 “라틴아메리카가 이질적이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통해 풀어내려 했다”며 “COVID-19로 인해 멀리 있는 나라에 못 가게 되었기 때문에 랜선 문화기행을 진행하려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또 “랜선 문화기행을 통해 이질적이고 먼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문화 요소 중 음식이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척도”라며 “행사에서 라틴 아메리카

의 음식 문화를 전하며 이해를 돕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던 우리학교가 코로나로 한계가 생겼다”며 “랜선을 통해서라도 멀리 있는 문화를 배우고 나면 상황이 정상화되었을 때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랜선 문화 기행을 통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경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문화 기행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15일에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 1이 끝나면 나면 22일부터는 ‘용인 시민과 함께 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2(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2)’가 시작될 예정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2에는 ▲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임수진 교수의 ‘신화에서 문화로(라틴아메리카의 옥수수 문화)’,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우석균 교수의 ‘카리브의 눈물, 설탕: 설탕과 권력’, ▲장재준 전 한국외대 특임교수의 ‘안데스 고산지대의 먹거리 감자와 코카’,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임두빈 교수의 ‘날 것과 익힌 것의 문화 코드로 읽는 브라질 음식문화’ 까지 4개의 강연이 계획돼 있다.

강연은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강연 신청은 용인중앙도서관 홈페이지)문화행사신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 3~4회차에 대한 선착순 접수는 마감돼 대기자 신청을 받고 있다.